

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출을 맞아 단장 주 교님의 말씀

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는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 단원들과 사제들의 마음은 새 교황님에 대한 존경과 순명, 직무 수행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라 설명한다.

2013-3-13

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이 순간이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. 새 교황님 프란시스코 1세는 베드로 성인의 266 번째의 후계자입니다. 흰 연기를 보았을때부터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, 지금은 베네딕도 16세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새 교황님께 존경과 순명을 약속 드립니다.

+ 하비에르 에체바리아

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장 주교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<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peuranciseuko-gyohwangnimyiseonculeul-maja-danjang-jugyonimyimalsseum/> (2026-2-18)